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4791호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산업]
최정우 포스코 회장
"용광로 없는 제철소 추진"
수소환원제철 시동
06

Economy

코스피 2908.31 (-53.86)
코스닥 922.36 (-33.01)
금리(국고채 3년) 1.719 (+0.069)
환율(원·달러) 1192.30 (+3.60) 〈6일〉

코스피 2908 마감… 대내외 악재 덮쳐 증시 불확실성 확대 "벤치마크 피해야"

코스피 53.86, 1.82% 하락
뉴욕·유럽 반등에도 하락세
4분기 코스피 밴드 하단
2900초반으로 하향 조정

코스피가 전 거래일(2962.17)보다 53.86포인트(1.82%) 내린 2908.31에 장을 마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3000포인트를 밑돌았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증시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상향 업종과 배당 매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86포인트(1.82%) 하락한 2908.31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전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반등했음에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 및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상승 출발했다"며 "그러나 경기 모멘텀이 꺾이고, 기업 이익 개선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악재성 재료가 유입됨에 따라 매물이 쏟아졌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3분기인 7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증권업계는 투자심리 악화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중국 헝다그룹발 유동성 위기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 등을 꼽았다.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은 오는 4분기 코스피 밴드 하단을 2900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2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인류문명 발전 이끈 철강산업 '탄소중립' 새 문명 앞장서길"

수소환원제철 포럼 개최
文 대통령 "3000년 제철기술 지구 환경위해 변화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축사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포스코 주최로 열린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련기사 6면〉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4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가상공간서 아바타로 콘서트 예매·관람, 캠핑장 방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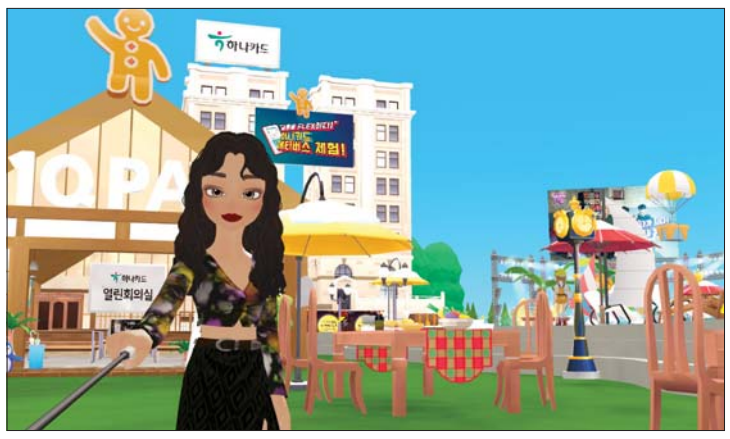
온·오프 경계 허문 금융 소비생활 현실이 되다

메타버스와 금융 〈2〉 카드사의 미래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관람하는 날. 공연장 대신 메타버스로 구현된 콘서트장에 접속한다. 20% 할인가로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메타버스 영업점에서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필수. 내 아바타에게 입힐 콘서트 기념 티셔츠까지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2시간에 걸친 공연을 즐긴 뒤엔 산책을 나선다. 카페에 들러 메타버스 제휴 앱카드로 커피 한 잔 값을 결제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포인트가 적립된다.

하나카드 '하나카드 월드' 콘서트장·캠핑장 등 조성
뮤지션-팬 소통공간 마련

신한카드 제휴상품 출시
제페토와 현실 연동하는
결제 플랫폼 구축할 전망


기자의 아바타가 제페토에 조성된 '하나카드 월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소완 기자

메타버스 열풍이 카드업계에 번지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영업창구를 가상공간에 마련하고 결제 플랫폼을 구축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금융 소비생활이 눈앞에 펼쳐질 예정이다.

본래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주목받던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금융권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간편결제 확산 등 '삼중고'에 처한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주도하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해 신규·잠재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협업, 가상세계 경험·가치 제공

메타버스와의 협업은 은행계 카드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하나카드다. 지난 7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야외콘서트장, 캠핑장 등 6개의 가상공간으로 구성된 '하나카드 월드'를 선보였다. 하나카드는 자사 유튜브 콘텐츠인 '하나TV 뮤직콘서트'를 월드의 콘서트장으로 가져오는 등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었다. 향후 뮤지션과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페토에 입점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7월 제페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가상공간 조성을 넘어 제휴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신한카드는 제페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대 전용 선물카드를 만들고 연령대에 맞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10대 소비패턴에 맞춰 계좌·포인트 충전 외에 현금 충전 기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별 아바타를 카드 플레이트에 담는 등 차별화 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권소완 기자 thin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국내 언론사 최초
'기사이력 공시제도' 도입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짜뉴스' 논란 등 언론불신을 없애고 언론윤리에 앞장서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기사이력제는 기사화한 과정을 크게 6가지로 나눠 독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독자가 궁금해 하는 '기사화 과정과 경위'를 기자가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기사 하단에 표시될 기사이력 코드는 취재(기획)·취재(제보)·취재(자료보완)·보도자료/SNS서핑·기타(국내외 논문학술지·증권사리포트·타언론 사후속보도 등) 등 6가지입니다.

메트로는 기사이력제를 통해 뉴스 생산자(기자)와 소비자(독자)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취재기자의 '자율공시'를 통해 언론윤리를 지키고, 기사가치 제고를 꾀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중재법 등이 화두입니다. 메트로는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독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metro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文"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라"
▲ 홍남기, 지역화폐 실효성 지적에 "지자체 판단에 따른 것" /사진 뉴시스

▲ 野 후보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 이낙연 "대장동 진상규명 늦으면 한국정치 엄청난 혼란"

▲ 국민의힘, '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사진 뉴시스
▲ 北선전매체, 대장동 의혹 언급…"국힘당, 역풍"